신년호 특 집

前·現職 警友와 사회 각계 人士들의 新年 메시지

乙酉年 한해 다같이

조직에 대한 애정과 참여의식 키우자

- 이 현 순 (중앙회 이사)

갑신년 한해는 역사의 뒤안길에 묻히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경우가족의 건승하심을 기원한다.

지난 한해 우리 경우회는 과거에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격동적 변환기였다. 경우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경선에 의해 선출된 고 김원환 회장의 급작스런 타계와 역시 경선에 의해 압도적으로 당선된 구홍일 후임 회장 체제의 출범이 그것이다. 체제교체 과정에서 보여줬던 회원들의 성숙된 민주질서 의식은 무질서에 순치된 현실사회에서 조직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전통성을 소중히 간직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자긍심을 갖게 한다.

고 김원환 회장은 우직하리 만큼 강한 신념과 의지로 조직의 활성화, 특히 뿌리조직인 시도·지역회에 대한 집중지원에 전력투구 하였으나 결실을 못본체 떠나신 것이 못내 안타깝다.

바톤을 이어받은 구홍일 회장은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취임하자마자 숨쉴사이도 없이 조직발전을 위해 역동적으로 동분서주하며 잠재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마음 든든하다.

경우회는 과거 불미한 사건들이 없지 않았음에도 연륜에 따라 발전하며 전통성을 이어왔으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경찰인의 유일한 자산인 기흥골프장 문제, 아직도 미흡한 뿌리 조직 지원문제, 그리고 회원 배가운동 및 수익사업개발 문제 등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의 성패는 모든 구성원의 조직에 대한 애정과 참여의식이 그 척도가 된다는 것이다. 아직도 가입(등록)을 주저하시는 상당수 회원들께서는 이제 결단을 내리시어 보다 보람있고 가치있는 여생을 보내시기 바란다.

끝으로 구홍일 회장께 당부드립니다.

경선때 전국 대의원들이 보내주신 전폭적인 지지와 취임식에 참석하신 원로들의 성원의 함의(含意)를 읽으시어 초심을 잃지 마시고 장·단기 계획에 의해 공약사항의 내실있는 실천에 혼신을 다해 달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겨울날의 양지와 여름날의 그늘에는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든다"는 말이 있듯이 뜻하시는바 대로 경우회 자체를 온정이 샘솟는 회원들의 안식처로 가꾸어 주신다면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붕정만리(鵬程萬里)"의 큰 뜻을 안고 출범하신 구홍일 회장 및 경우회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고 김원환 회장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경찰 가족에게…

- 표 창 원 (경찰대학 교수)

2005년은 한국경찰에게는 그야말로 희망의 새해입니다. 지난 60년간 국가를 세우고, 민족을 지키고 사회 안정을 지탱해 오느라 자유와 행복, 때로는 생명마저 포기하고 희생했던 우리 경찰도 이제 그 역할과 기능에 걸 맞는 위상과 지위를 인정받는 새 시대가 열리려 합니다.

그 동안 부러워하던 선진외국의 경찰처럼 명실상부 당당한 수사의 주체가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분담으로 국민의 지지와 신뢰라는 경찰력의 든든한 원천을 얻게 되었습니다.

경찰예산과 장비, 보수의 현실화 작업도 그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망령처럼 따라다니던 냉소주의와 권위주의, 계급만능주의와 내부 갈등을 떨쳐내고 모든 경찰이 '한 가족'이 되어 힘차게 전진하기만 하면 됩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고 공정성과 성실성으로 무장하여 자신 있고 멋진 '어사박문수', '판관 포청천', '셜록 홈즈'들이 됩시다. 황우석 교수, 태극전사들, 한류 스타들, 수출역군들이 땀과 노력으로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내어 나라를 빛내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듯이, 우리 경찰은 세계 어느 나라 경찰보다 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잘 지켜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경찰을 세계에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국민과 언론이 그 나라 정부와 경찰에 '한국경찰을 좀 배워라' 소리 높여 외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는 '警友'가 되신 경찰 선배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왔듯이, 그 뜻을 이어받은 현직경찰관들이 인내와 희생으로 오늘의 경찰을 만들어 왔듯이,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새내기 경찰들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天職'에 몸 바치겠노라 맹세를 하는 그 자세로 서로 뜻을 함께하여 노력한다면 말입니다. 한국경찰의 학력과 개인자질은 세계 최고입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며 존중하고 협력하기만 한다면 경찰조직도 최고가 될 것입니다. 2005년 한국경찰, 파이팅 !

경찰에 바란다

- 권 원 달 (충북대 명예교수)

어느시대 어떤국가에서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국가가 국민에게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명령, 강제하므로서 국민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을 하게되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경찰이다.

우리나라의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과 진압 그리고 수사. 교통 등 기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작용이라 했으며 이러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경찰관이라 규정하고 있다.

경찰의 행정작용은 다양하고 무한정하며 국민생활에 끼치는 영향도 커서 국민이 경찰에 바라는 것은 끝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국민은 항상 경찰권의 무한성을 느끼면서 국민가까이에서 보호막이 되어 주기를 바라며 살아가게 된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사람들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욕구, 무한정한 이기심의 발동, 물질만능의 사회풍조, 남북간의 특수상황에 따른 이념갈등, 지능화 되어 가고 있는 사건사고로 사회공공질서를 해치는 일이 많아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사회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의 기능은 사회 각부문에 깊고 넓게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선진국을 향한 경찰의 참모습도 이제부터 변화를 시도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볼 수 있다.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영국의 경찰관은 모두 비무장이 원칙이고 순찰도 경찰봉만을 가지고 행하며 범인 체포도 수갑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지정된 자 이외에는 소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고 한다.

만약 우리사회가 경찰행정작용을 이렇게 한다면 공공의 안녕과 질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만 해도 걱정이 된다.

그러나 우리경찰의 경찰강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또한 경찰권의 한계는 무리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스스로가 끊임없는 교육과 자기 혁신으로 민중의 지팡이 구실을 자임하고 나서야 할 때이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경찰이 아닌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경찰"이 우리 주변에서 국민과 함께 자리해 주기를 소망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우리 경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을유년 새해에는 온 국민이 바라는 참 경찰상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경찰관 모두는 경찰관이기 전에 우리 사회의 한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보람된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 할 뿐이다.

희망찬 새해를 맞는 포부

- 이 용 팔 (대구 경우회장)

정치 경제적으로 혼란했던 다양한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미력하나마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지역경우회의 발전에 노력하였으나 나의 부족한 소치로 만족할만한 목표달성에 미치지 못한 갖가지의 아쉬움을 나의 남은 여생의 교훈으로 삼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움은 인생역사의 뒤안길로 흘려 보내면서 갑신년 한해를 마무리 짓고 복되고 희망찬 을유년을 맞이하여 지역 경우 회장직 9년간의 경험을 거울삼고 1200여 지역경우회들의 협조와 중지를 한대모아 심기일전 분발하여 획기적인 회발전의 한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몇가지를 꼭 실천, 실현시킬 각오입니다.

첫째, 지역 경우회관의 확보(마련)입니다.

지역회원들의 숙원인 대구시내 중심가에 경우회관 확보를 위하여 회 창설초부터 계속 노력해왔으나 너무나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중 금번 중앙회로부터의 1억원의 자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역회원들의 십시일반 성찬을 모아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내중심지에 늦어도 상반기 중에 아담한 회관을 마련하여 필요한 집기는 물론 건전한 놀이기구, 운동기구 등을 구비하여 가능한 공식행사를 그곳에서 시행함은 물론 시내를 오가는 회원들이 수시로 출입하면서 서로의 소식도 전하고 사회정보도 교환하며 오락도 즐기면서 서로의 친목과 화합으로 경우의 긍지를 한층 고양시킬 계획이며,

둘째, 수익사업의 적극 개발입니다.

현재 당회 수익사업으로는 경찰차량보험 대수료로서 약간의 회운영에 도움을 받고 있으나 너무나 미미하므로 경우회 자문위원회와 임직원들의 중지를 모아 한두가지의 수익사업을 더 개발하여 회 발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셋째, 전현직간의 유대강화와 적극적인 치안협력입니다.

경찰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들 전직 경우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므로 연중 월 1회씩 정기 또는 수시로 경우회 회장단과 현직 각기능 부서장과의 회합을 가지고 각기능별로 시민들에 대한 협조사항 또는 우리 경우들의 직간접적인 협조사항(예를들어 수사의 범죄정보 제공 기타 사회 정보 등)을 제공 협의하여 이를 시민에게 홍보하고 1200여 경우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현직을 도움으로서 전현직간의 유대와 친목이 한층 더 돈독해지는 계기를 마련코저 합니다.

넷째,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현안사업 중요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 구군당국과의 친목과 유대강화는 물론 경우회의 위상제고에 노력을 경주토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조직의 활성화와 회원 단합입니다.

현재 미등록된 전직들에 대하여 경우회원 등록을 적극 권유홍보하여 10명 이상의 증원을 목표로 회원 증원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연차 계획의 매년 단합대회 회수를 (여름철) 1회 더 증가시켜 친목단합을 일층 강화하고 회원의 사기진작과 위상제고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각오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 이 재 열 (충남아산 경우회장)

또 한해가 바뀌었다.

나이가 들면서 송구의 허전함과 영신의 기쁨 보다 한해지내기 걱정에 뒤엉킨다. 자신의 여생에도 몸담아 아끼는 경우회에도 좋은 일이 많이 이어지길 빈다.

우리 아산재향경우회는 지난 한해동안 200여명의 경우들이 화합한 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다. 정기총회와 경우의 날 행사 때에는 용돈을 줄여 성금도 내고 자기활동시간을 할애하여 수익사업 개발에 힘쓰고 특히 우리 경우회에서 관리하는 경찰충혼탑 주변에 꽃도 심고, 제초와 청소작업에 자진 참여하여 주는 회원도 많다.

새해에 바라는 제 1과제는 고참모시기 전통확립이다. 우리 경우 뿐만 아니라 현직에서도 이러한 전통이 바로 서길 바란다.

퇴직후에는 재직시 계급보다 경찰입문 고참을 우대하여 선후배간 서로 감싸주는 조직으로 확 바뀌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

제 2과제는 회원조직확대이다. 아산에서는 연 5~6명의 회원이 타계한다.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경찰출신을 환대하지 않을 때가 가끔 있다. 그래서인지 경우회등록을 회피하는 회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회원 중에는 모임의 회비도 부담된다고 한다. 우리회에서는 등록을 회피하는 회원들께도 총회와 경우의 날 행사에는 빠짐없이 행사참여를 독려하여 회원 늘리기에 힘쓴다.

마지막 제 3과제는 전현직간 유대강화이다. 경우회원이 사망시에는 경찰서장이 조문하고 경찰차량으로 장례행열을 선구해준다는 고마움도 있다. 경우회 임원회등 행사나 모임 때에는 경찰서 서장, 과장을 초청 인사도 나누고 상호 정보교환은 물론 경찰서 직장훈련시 경우회장이 특강과 현직표창, 불우경찰관 돕기에도 참여 현직들의 고마워하고 지역사회에서도 칭송을 받고 있다.

신년 새해에도 회원모두 힘을 모아 경우회 위상 정립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중앙회의 지원만 기대하지 말고 지역실정에 맞는 회운용을 해 나가자. 또한 안보단체로서 손색없이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 하자.

경찰복 전문 / 맞춤 신사복 전문

◇ 여러분이 부르시는 곳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 각 지구대, 각 부서를 직접 방문 체촌과 A/S를 해드립니다.
◇ 최고의 기술과 정성으로 만듭니다.
◇ 근무복에 명찰을 부착해 드립니다.
◇ 성하복에 쇠단추를 달아 드립니다.
◇ 맞춤 신사복을 최상의 원단으로 최저의 가격으로 드립니다.

◆ 제품의 특징

◇ 국내 최초로 바이오 전자파 차폐 세이프론 원단 사용
◇ 정전기 방지용 재전 안감
◇ 바이오 자석을 이용한 건강 바지(바이오 적외선 87% 이상)

(주) 미성 CITY

서울 은평구 응암 4동 244-262 인창빌딩 4층
☎ 02)373-2381~2 FAX : 02)373-2883 H : 017-204-1718
홈페이지 : misungcity.com